



# 피눈물보다 진한 흰우유 눈물, 여의도를 적시다!

이승호 회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7.26 전국 낙농육우인 총결기대회 10,000여명 참가 -
- 여의도 농성장에서 이승호 회장과 협회 임직원, 종일 폭우와 사투 -

1만여 낙농육우 농민의 함성이 여의도에 울려 퍼졌다.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상경한 낙농육우 농민들은 >목장 원유가 현실화, >FTA 낙농 피해대책 수립, >사료값 안정 특단대책 수립, >육우가격 안정대책 수립 관철로 생존권을 쟁취하고, 낙농육우산업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여실히 드러냈다.

본 대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협회 배정식 부장의 사회로 사전대회가 시작되었다. 청년·여성 낙농가, 육우농가가 무대로 올라와 생산비 폭등과 이상기후에 따른 우유생산량 감소로 이미 한계상황을 넘어섰고, 목장은 폐업 직전에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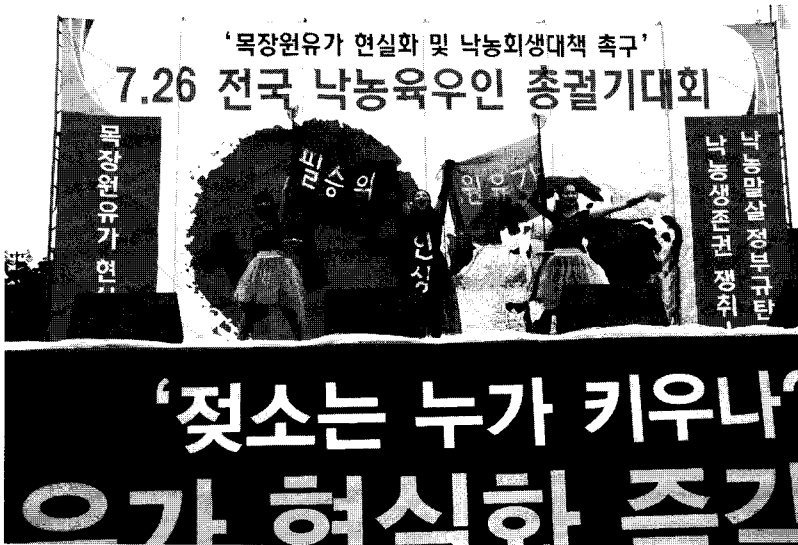
해 있는 현실이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하지만 정부와 유업체, 낙농진흥회 모두는 우리의 원유가 현실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상황극 '음메~ 내가 젖소'와 풍물패 길놀이로 대회 참석자들의 투쟁의지를 북돋았다.

본 대회는 협회 이용우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수길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여의도 문화마당을 꽉 매운 전국의 일만 낙농육우 농민들의 목장원유가 현실화와 낙농육우 생존대책을 요구하는 함성이 본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승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목장에서 일해야 하는 낙농육우 동지들을 여의도 아스팔트바닥에서 땀겨 되어 책임을 통감하라는 말과 함께, 우리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으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납유거부 투쟁시 전농가 동참과 투쟁과정에서의 피해농가에 대해 전농가가 십시일반 도와 줄 것을 동의를 구하자, 이에 집회에 참석한 1만여 농민들은 우리와 같은 함성으로 화답했다.



회장단의 식발의식으로 투쟁의지를 다졌다.



반드시 원유가 현실화를 관철하자는 울동퍼의 문화공연

특히, 이날 대회에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 김학용 의원, 민주노동당 윤금순 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정당관계자들과 농수축산연합회 김준봉 회장, 농민연합 윤요근 상임대표 등 많은 농민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연대의 뜻을 밝혔다. 대회에 참석은 못했지만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낙농육우 농

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혀 왔다.

홍윤기 부회장의 대회 경과보고와 오교율 전북도지회장의 정부규탄연설, 문화공연에 이어 이승호 회장, 김태섭 부회장, 김순영 부회장은 낙농육우인의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삭발식을 가졌다. 이용욱 청년분과 총북도위원장과 이정희 여성분과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농민들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날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우리 낙농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가로막는 농식품부, 공정위, 통계청, 유업체, 낙농진흥회 등 모든 장애물들을 바로잡고, 새롭게 낙농산업이 부활한다는 의미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으며, 이용우 이사의 선소리를 따라 농민들이 울부짖으며 뒤따랐다. 2세대 청년낙농 농민들이 실제 목장 착유복장을 한 채 바닥에 우유를 쏟아 부었고, 현장 농민들이 피같은 우유를 버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본 대회의 클라이막스였던 상징의식 장면

이어, 낙농생존권을 가로막는 정부·유업체·낙농진흥회를 상징하는 세 개의 허수아비와 상여를 불태웠다. 청년 낙농인들은 스스로 온몸에 목장우유를 쏟아 붓고 피눈물보다 진한 흰우유 눈물을 흘렸으며 낙농산업 부활의 장례식 대미를 장식하였다.

이승호 회장은 대회 정리발언에서, 단식농성 돌입을 밝히고 전체 농가들이 협회 강경대응 방침에 동의를 구한 만큼 향후 농식품부, 공정위, 유업체, 통계청, 진흥회 등 낙농생존권을 말살하는 어느 대상이라도 직접 나서서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리 폐회를 끝으로, 협회 임원진들은 국회 앞까지 행진하였으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단식농성장을 꾸렸다. 단식농성 돌입 직후부터, 밤새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성장 천막이 붕괴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힘든 기색 없이 낙농희생과 목장 원유가 현실화 관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무차별 폭우가 계속되고 있어 이승호 회장을 비롯한 농성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대회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단식농성장으로 성공적인 첫 투쟁을 지지하는 의사가 답지되고 있다. 협회장의 건강을 우려한 많은 낙농인들의 단식 중단 요구 또한 답지하고 있다. 이참에 전면 납유거부를 포함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낙농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